

제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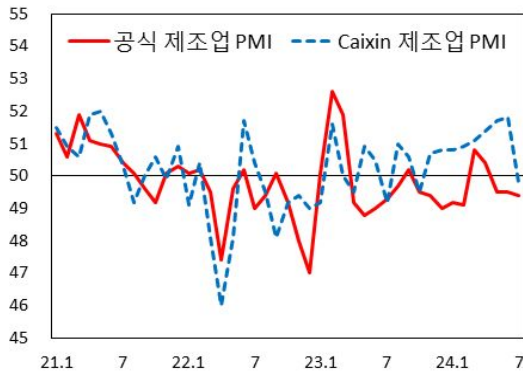
## 중국 7월 제조업 PMI 부진 지속

### 1. 7월 PMI의 주요 특징

□ (제조업 PMI) 7월 제조업 PMI는 49.4로 전월(49.5)보다 0.1p 하락하며 3개월 연속 기준치(50)를 하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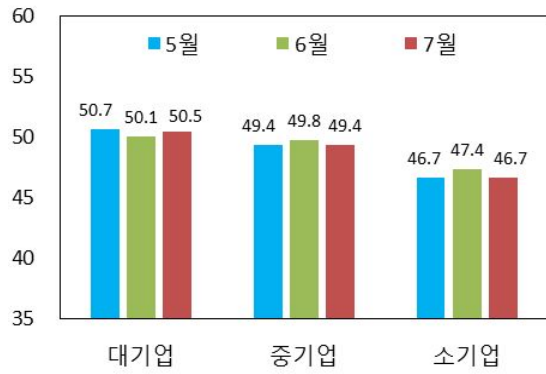
○ 규모별로는 대기업(6월 50.1 → 7월 50.5)은 전월보다 상승하였으나, 중기업(49.8 → 49.4)과 소기업(47.4 → 46.7)은 전월보다 하락

제조업 PMI

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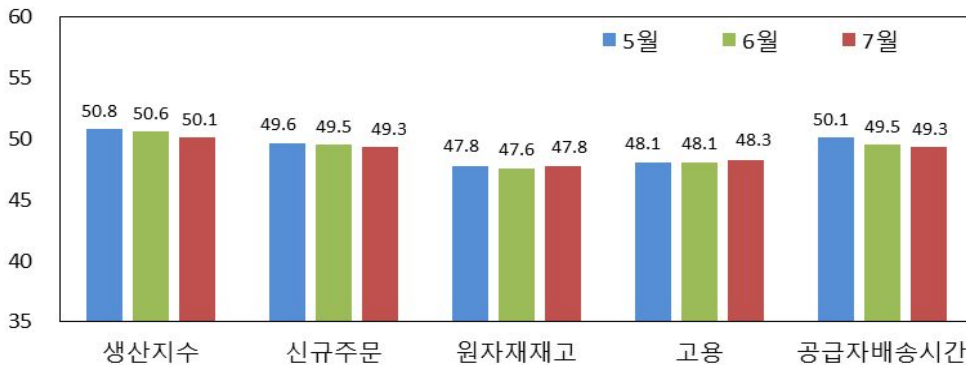
기업규모별 제조업 PMI

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○ 세부 항목별로 보면 원자재재고(6월 47.6 → 7월 47.8)와 고용(48.1 → 48.3)은 전월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, 생산(50.6 → 50.1), 신규주문(49.5 → 49.3), 공급자배송시간(49.5 → 49.3)은 하락

구성항목별 제조업 PMI

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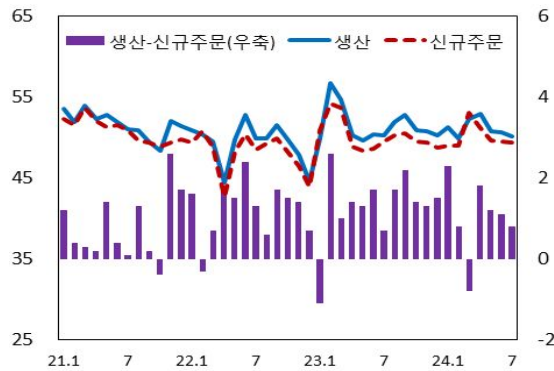
작성자 : 북경사무소 신동주 과장

— 공급으로 해석가능한 **생산지수**와 수요로 해석가능한 **신규주문지수** 간 **차이**는 **축소**\*

\* 생산지수 - 신규주문지수: (24.4월) 1.8 → (5월) 1.2 → (6월) 1.1 → **(7월) 0.8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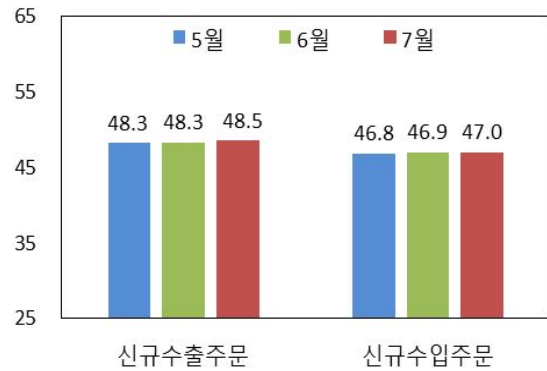
— **신규수출주문**(6월 48.3 → 7월 48.5)과 **수입**(46.9 → 47.0)은 모두 전월보다 **소폭 상승**하였으나,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지속

**생산 및 신규주문 PMI**

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**수출입 관련 PMI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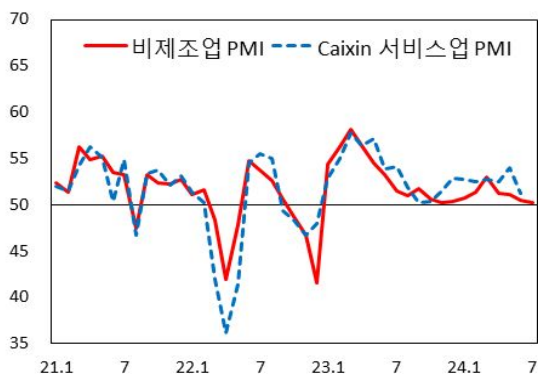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□ **(비제조업 PMI) 7월 비제조업 PMI는 50.2로 전월(50.5)보다 하락**

○ **서비스업**(6월 50.2 → 7월 50.0)은 항공·운송, 정보·통신 등이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으나, 부동산 관련 서비스, 금융·보험 등이 부진함에 따라 전월에 비해 **소폭 하락**

○ **건설업**(52.3 → 51.2)은 부동산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, 홍수·고온 등 기상여건 악화가 가세하면서 전월에 비해 **둔화**

**비제조업 PMI<sup>1)</sup>**



주: 24.7월 Caixin 서비스업 PMI는 미발표  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**건설업 및 서비스업 PMI**

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□ **(종합 PMI) 7월 종합 PMI(50.2)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하락함에 따라 전월(50.5)보다 0.3p 낮아짐**

## 2. 시장평가 및 전망

□ **중국경제**는 7월 제조업 PMI가 3개월 연속 기준치를 하회하고 비제조업 PMI도 하락세를 나타내는 등 전반적으로 **경기둔화세가 지속**

○ 대부분의 현지 전문가들은 최근의 기상여건 악화(홍수·고온)가 생산활동을 제약한 측면이 있으나, 소비 개선세 미약, 부동산경기 부진 등 **내수부진에 따른 업황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**고 평가(红塔证券, 东方金城 등)

○ 또한 기업 수익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표(PMI)를 보면, 원자재 구입비용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, **공급과잉, 내수부진 등이 제조업 제품의 시장 가격 하락**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(中泰证券)

□ 이러한 경기둔화 흐름의 주요 원인으로는 유효수요 부족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, **정부의 내수진작책이 크게 저하된 경제심리를 얼마나 빠르게 개선할 수 있을지가 하반기 경기회복 양상을 좌우할 전망**

○ 중국정부는 대외여건 불확실성 증대, 국내 유효수요 부족 등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면서,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확대를 강조하는 한편, 기업간 극심한 가격경쟁을 지양할 것을 주문(7.30일, 중앙정치국회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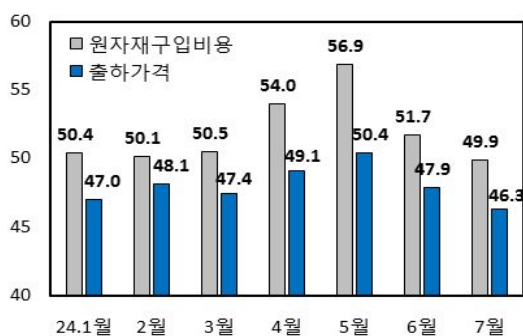
— 대외적으로는 수출이 금년 들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최근 중국산 제품(전기차 등)에 대한 미국의 관세인상 시점도 연기\*되었으나, **주요국과의 무역갈등**은 여전히 중국업체의 **주요 리스크 요인**으로 잠재(Fitch)

\* 7.30일(현지시간)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산 전기차, 배터리 등에 대해 당초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관세율 인상을 최소 2주 연기하기로 함

— 대내적으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고용불안도 이어짐에 따라, 가계심리(고용\*)가 코로나19 당시 수준(2022년)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**소비증진을 위해서는 가계의 소득보장 및 심리개선이 관건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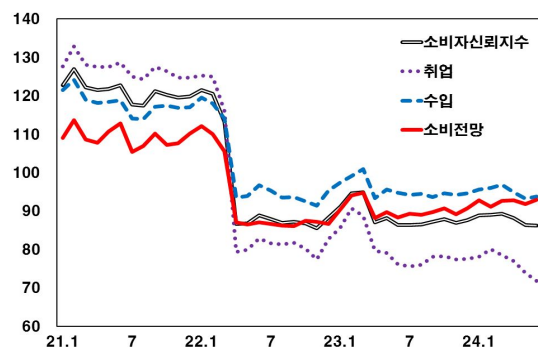
\* 24.6월 취업 관련 소비자신뢰지수는 71.8로 해당 통계가 편제(16.12월)된 이래 최저치

**원자재 구입비용 및 공장 출하가격 PMI<sup>1)</sup>**



주 : 1) 양 지수 모두 제조업 PMI 하위지표임  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**소비자신뢰지수**

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